

연구논문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

차경희** · 김경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젠더화 되어감을 인식하고,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보면 첫째, 생애과정에서의 젠더 경험은 어떠한 시기에 차별인식이 완성되었기 보다는 여성주의를 만나면서 재해석되고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었다. 여성주의 정체성은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 경험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공적인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여성활동가들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로 명명되어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셋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의 실천은 임금, 노동, 인권문제 등 다양한 여성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내적 갈등과 의도적 노력 속에서 현실적 문제를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있었다. 여성주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유기체와 같이 지속적 관심과 의심, 성찰이라는 과정의 공급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주제어: 구술 생애사, 여성 활동가, 여성주의, 여성주의 정체성, 젠더경험

* 이 논문은 차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인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전남대학교 NGO학 석사(kjfeminist@hanmail.net)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kks@jnu.ac.kr)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군부독재의 종식은 한국의 여성운동의 향방에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치투쟁에서 삶으로 그 관심과 지향점이 다양화되었다(정현백, 2006).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 여성운동은 의식화 주체운동 보다는 구조 개혁으로서의 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법적 개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여성운동은 점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여졌다.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여성단체 활동가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여성 활동가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신경아(2013)는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주어진 역할을 기대에 맞게 수행함으로써 가족과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획득하려고 하지만 구조적 불안정성 앞에서 개인들의 실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임옥희(2011)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젠더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와 대면함으로써 젠더들이 느끼는 불안, 분노, 두려움은 타자의 담론으로서 젠더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운동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실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위축도 함께 가져왔는데, 법 제정으로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더 이상 풀뿌리 운동이 아닌, 여성단체의 관료화나 지역 문제에 대한 의제 발굴의 한계 등을 노출하였고, 여성주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입도 줄어들었다.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여성 연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해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들의 대응방식을 더 이상 거대 담론의 차원이 아닌 일상의 삶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여성들이 다양하게 주체화되는 과정을 드러내주었다. 특히 여성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전기적 맥락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 또한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경험 및 욕구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이순영, 2000).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집단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¹⁾ 2000년대 이후 여성들 간의 차이, 집단에서의 여성의 내부적 차이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제인 ‘차이의 정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다양한 위치성과 다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다혜, 2012).

이러한 현실적, 학문적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주체인 여성 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자에 대한 하나의 규범화된 상²⁾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을 주체로 세우려는 여성주의가 오히려 상대나 자신을 검열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거나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여성주의자는 외부적으로 반여성적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대중들로부터 고립되었고, 내부적으로 가부장제를 해석하고 비판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행위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지역에서의 여성 활동가들은 일부 지명도 높은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달리, 공통의 여성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
- 1) 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대학가 중심의 여성운동 주체들에 대해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 모델을 유형화하거나, 사회운동가로서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정체성 논의가 전개되었다.
 - 2) 장미경(2006)에 의하면, 여성주의자는 여성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여성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성활동가들은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스스로 ‘여성주의자’에 대한 규범화된 상을 만들었다. 이들에게 여성주의자는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활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각 개인들이 우연히 여성주의를 만나 젠더 경험을 개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생활양식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이다혜, 2012). 실제로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실천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전희경(2001)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한 개인이 놓인 상호 연관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 개념화하였다.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은 다양한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여성주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여성 활동가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둘러싼 내외적인 문제들과 결합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이들이 주체로서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소중한 경험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성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나, 특히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연구들(강경란, 2013; 신미란, 2014; 육정미, 2010; 황선영, 2011)은 여성주의 운동 참여 이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자각, 정체성 형성의 구체적인 의미나 의도 표출이 미약하였다. 다만 전희경(2001)은 여성주의 정체성이 사회운동의 오랜 가부장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특징적인 두 집단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류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고, 조직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출현을 구체적인 맥락으로 제시한다. 또한 김아령(2008)은 2000년대 ‘영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개인의 의미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여성운동과 개인의 일상생활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여성주의 정체성을 여성의

일상의 삶 안에서 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다혜(2012) 역시 여성주의 운동 내 여성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입체적인 현상과 흐름을 보여주었고, 여성주의 활동을 하기 위한 단일한 정체성이 전제되지 않으면서도 여성주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들 두 연구는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가 대학 중심의 여성주의 운동 그룹을 대상으로, 즉 90년대 중반 독자적 여성운동을 펼쳐나간 대학 내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모임, 동아리 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여성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영(2014)은 생애사를 통한 여성주의 인식전환 연구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여성주의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여성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여성주의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생애사적 접근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 여성 활동가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91편의 여성 생애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매매, 결혼이주, 저소득층, 노인, 이혼, 탈북, 장애, 성노예, 자발적 비혼, 이민, 또는 개인의 생애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주의 여성 활동가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여성활동가들이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겪는 젠더 경험이 어떻게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실천 현장과 연결되어 지는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생애과정의 젠더 경험³⁾과 여성주의 정체

3) 여성의 젠더경험은 그 자체 삶의 사건의 집합체일 뿐 아니라 젠더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다(김성례, 2012).

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젠더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여성주의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다양하게 구체화되는지 개별적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이의 내면화 과정은 어떻게 수렴되어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정의되어 가는지, 또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규범화된 상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실제 지역실천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이 가시적 주장이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현장의 행동으로 어떻게 외연화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지역 여성 활동가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면서, 본 연구를 통해 '여성주의자'라고 불리는 지역 여성 활동가의 젠더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행위자 개인의 생애 과정을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구술 생애사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삶 이야기, 생애이야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생애이야기는 여러 층위에서

접근하고 그 중 하나인 구술 생애사 안에 생애이야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구술사는 수집과정(data collection), 생성된 자료(data 또는 text), 자료에 대한 해석방법(data analysis)과 방법론적 효과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질적 방법론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이나영, 2012).

여성주의 관점을 통한 생애사 연구는 구술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젠더경험을 역사화하게 된다(송상민, 2013). 여성연구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말하고 해석하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때 여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함께 삶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데, 이에 적절한 방법이 생애사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지역에서 현재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 다문화, 여성정책, 문화, 성매매, 인권교육 등 다양한 여성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6명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활동가로서 여성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별로 구성한 이유는 세대별 흐름, 시대적 성장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이다. 이들의 활동 분야는 상담, 정책, 다문화, 성매매, 인권 등 여성주의 사회실천이 확산되어 가는 역사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성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기혼 여성 활동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결혼은 개인이 가족, 노동, 계층 등의 경험이 역동적으로 갈등하고 협상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이재경·김보화, 2015)는 의미에서 여성들의 결혼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

사례	이름 (가명)	연령	활동분야	활동 기간	결혼 기간	원가족 (서열)	자녀	학력
사례 1	김연희	50대	상담	22년	31년	3남2녀중 셋째	1녀1남	대학원 수료
사례 2	안현미	50대	다문화	13년	30년	3남2녀중 둘째	1녀1남	대학 졸업
사례 3	정혜리	40대	여성정책	20년	10년	2남2녀중 셋째	2남	박사 졸업
사례 4	나지수	40대	문화	10년	12년	3남2녀중 다섯째	1녀1남	대학 졸업
사례 5	박선미	30대	성매매	8년	11년	2녀중 첫째	1녀1남	대학 졸업
사례 6	이새롬	30대	인권교육	5년	1년미만	2남1녀중 셋째	없음	대학 졸업

3) 연구절차 및 연구윤리 확보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통한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만나 대화를 통해 생각, 의미, 감정,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참여자와의 면접 과정을 녹취하여 전사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엄격하게 대본화되어 있지 않은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질문에 대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으로 언어화된 모든 질문은 면담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Yin, 2013) 적용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을 하기 위해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1~2차에 걸쳐

개인 당 2~3시간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나 카톡을 통해 추가로 요청하였다. 연구윤리 확보 차원에서 면담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에 관련된 내용과 자료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3. 여성주의 정체성의 획득

본 연구에서는 여성 활동가가 생애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여성주의 이전의 젠더 경험 → 여성주의와의 만남과 이해 → 여성주의 정체성의 구성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여성주의 이전의 젠더 경험⁴⁾

(1) 직·간접적 배제와 차별

3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연령인 연구 참여자들은 출생 순간부터 양육, 교육 과정에서 수많은 젠더 불평등을 경험한다. 주어진 권한이 박탈당하는 경험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성차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4) 젠더 용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내려진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규정에 사회·문화적 영향이 스며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다. 아울러 젠더의 개념에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다음백과, 2017). 본 연구에서 젠더경험은 성별의 차이를 통한 역할과 기대의 구분 경험을 말한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차별받은 경험을 떠올리면 오빠들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만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름하고도 결부되어서 차별받는 존재인가하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이 새롭인데 한글이에요. 근데 오빠들은 진석, 민석으로 한자이고 아빠 집안이 석자 돌림이에요. 아들들은 작명소에서 지었고 딸이라 너는 그냥 그렇게 지었다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사례 6).

사실 부당한 대우는 밥 먹을 때였어요. 밥을 먹을 때 남자들끼리 먼저 먹고 나면 여자들이 먹는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할머니가 산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죠(사례 5).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회 선거를 나갔는데 선생님이 너는 여자니까 부회장을 나가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 고 3때 수학을 못해서 계속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국립대는 간다고 하고 재수는 안한다고 하니깐 선생님이 공대를 가면 수학을 해야 하고, 공대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라고...(사례 3).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성이라는 특권을 주로 남성에게 부여하였다는 것과,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성별분업을 그대로 답습된 행위들을 보여준다. 교육 현장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해버리는 경험은 사회의 위계적인 성별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한다. 30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험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최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 강요된 성역할⁵⁾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희생적인 어머니의 가족 내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지만 일부는 이런 상황에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게 된다 (조옥라·신경아, 2000). 참여자들 또한 부모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자연스럽게 부여받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가사 일을 두 딸들에게 시켜서 여동생하고 둘이 그 당시 유행 가를 부르면서 늘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있죠(웃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어요. (...) 어렸을 적에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오빠가 집 앞에 만화가게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몇 번 못 가게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간 것이 들켜서 오빠한테 회초리로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1).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아빠 밥이나, 오빠 밥 차려주는 일이나 설거지, 빨래를 하라는 말은 다 저에게만 했어요. 결과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번 싸우고 매번 말을 안 들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오빠하고 싸워서 코피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고모들이 와서 저 애는 되게 기가 세서 오빠 코피까지 터뜨리는 애라고 날 비난하고...(사례 6).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살핌 노동은 여성의 성역할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을 정면으로 부딪치기도 하는데, 남자 형제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는 것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성차별 의식을 형성해 나간다.

5) 성역할은 남녀가 맡은 각기 다른 고유의 사회적인 기능을 말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특징이나 기질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한 것이다(이재경 외, 2007).

(3) 모성에 대한 자기 인식

모성은 불변의 형이상학적 실체나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다. 모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체현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재,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것,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모성 이데올로기⁶⁾는 젠더 현실을 희석하고 여성들의 모성 경험을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왜곡한다.

큰 애를 키울 때 너무 우울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성생활도 안 했어요. 임신하는게 너무 싫었어요. 피임을 해도 임신을 할까봐 안 했어요. 애기 키우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 둘째 아이 돌 지나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 집에 있으면 무기력하고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해요(사례 5).

저는 태생적으로 모성이 적었어요. 사실 아이가 사랑스럽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키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모성애가 생긴다는데 저는 못된 엄마인가 왜 나는 아이가 귀찮고 어쩔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까? 반성하고 잘해줘야겠다고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둘째 아이가 버거웠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사례 1).

젠더불평등과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유의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최윤경, 2010), 〈사례 5〉에게 양육을 온전히 혼자 담당해야했던 시간은 관계의 단절과 우울로 이어지나, 스스로 공

6) 모성 이데올로기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여성이 해야 할 일은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의미한다. 여성의 역할들은 성별 분업이라는 맥락 안에서 정당화되는데 남녀의 서로 다른 역할은 상호보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입각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은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의 과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떠맡게 된다.

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로 남지 않게 된다. 출산 회피나 출산 지연의 행위는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사례 1>도 본성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자신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이것은 곧 모성에 대한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보여주면서 모성이 없는 것은 비난받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모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에 순응하기 보다는 모성이테올로기라는 한국 사회의 집단 정체성을 거부하기도, 내면화하기도 하는 갈등 과정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의 구술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을 수도 있으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 일상에서 만나는 성폭력

중학교 몇 학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도 그 기분이 남아있어요. 그 기분은 놀람, 수치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근데 지금은 그때 뭔가 저항을 했어야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그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사례 3).

대학생 때 버스를 탔는데, 맨손이 내 등으로 브래지어 끝까지 쑥 들어왔어요. 몸을 아무리 비틀어도 안 되고 계속 피해만 갔어요. 그러다가 동고동 와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는데...(사례 2).

일반적으로 참여자들 모두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폭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

다. 부당한 경험에 대한 억울한 감정은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위치적 한계는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여성들의 생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성폭력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생존자로 인식하는 과정이 점차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2) 여성주의와의 만남과 이해

(1) 여성주의와 만나게 되는 계기

참여자들이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는 계기를 보면 목적을 찾아가는 의식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기와 열망이 맞물려 만나게 되거나, 직업이나 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여성주의 담론을 접하게 되었다. 개인적 관심이 확대되어 모임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만나게 된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서 가사나 양육이나 온통 내 몫이었어요. 오랫동안 참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을 했던 시댁 형님의 소개로 여성단체를 소개 받았어요(사례 1).

결혼한 다음에 2년 동안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갔어요. 한 주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 며느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역할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많았어요. 이 때 인생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구나하

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내적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에 올라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 상담학교 인내를 보게 되면서 나도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쪽 일을 해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여성단체 교육을 받으러갔죠(사례 2).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 여성에게 규범화되고 요구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정 내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불평등을 직면하면서 여성주의를 만나게 된다. 특히 50대는 성별 규범이 엄격했던 성장기를 거쳐, 청년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닥뜨린 세대로서 의식과 가치관의 혼재와 그로 인한 갈등이 증폭된 세대이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데모를 해서 졸업 이후에 뭘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하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단체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청년모임 함께'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여성학을 공부했고, 여성주의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사례 3).

대학 시절까지도 크게 여성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 내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 활동을 할 때 제가 그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죠(사례 4).

대학교 선배 소개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단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내가 너무 차별받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사례 5).

참여자들은 여성주의 만남의 계기도 다양하고 현재 활동을 시작하는 계

기도 다양하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찾기도 하고, 자신의 활동의 필요에 의해 수용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운동의 활성화 단계에서 성장기를 맞은 30, 40대는 다양하게 여성주의 담론을 접하게 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차별적인 경험을 재해석하고, 주체인 나를 인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넘어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주체인 ‘나’를 새롭게 인식

사회운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담학교라고 하니까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육은 굉장히 큰 회오리였어요. (...)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억울한 감정들이 한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례 1).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교 한 학기 동안 여성학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페미니즘 같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었어요. 되게 이상적으로 들렸어요. (...) 여성주의를 만나면서 아, 나의 불편함이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단체 활동이 지금도 여성으로서 나를 찾게 해준 것 같아요(사례 2).

두 참여자는 결혼 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졌던 불편한 감정과 부당한 경험을 여성주의 담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나’를 찾게 된다. 개별적 차별 경험을 개인적이고 보편적 경험으로 용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가려져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적인 영역으로 꺼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재해석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50대의 이러한 변화는 지역 여성운동이 뿌리를 내리

는데 기여한 바가 크고 실제로 이들이 지역여성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 여성주의 정체성의 구성

(1) 기존(과거) 경험의 재해석

인간은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비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므로(조혜자, 2002),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여자들도 공부를 해서 뭔가 자기 직장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자식들한테는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딸도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여성은 엄마역할, 아내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사례 1).

우리 4명은 행복했고, 아빠도 행복했죠. 하지만 우리 엄마가 행복했을까?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해요. 남편하고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4명을 키워던 거는 남의 집에 들어와 혼자 살면서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한 안간힘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사례 3).

〈사례 3〉은 자신을 인본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삶이 여성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인정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과 다른 어머니의 상을 선택하게 되는 현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여자의 성장과정, 연애,

결혼 등 자신의 삶 속에서 성역할을 변화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남자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또 다른 관계가 확장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A뿐만 아니라 B라는 파이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사례 3).

〈사례 3〉이 인식하는 것처럼 남성들은 상명하복과 선배, 군대문화를 통해 관계를 맺고 사회진입을 통해 재생산되지만, 여성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향상을 통해서만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여전히 경사져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여성들의 경험적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안타까움은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재해석의 과정이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화장을 안 하고 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목까지 찰 만큼 큰 압박이었어요. 그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나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되고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사례 6).

〈사례 6〉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성에 대한 불편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정의 욕구 사이에서 자신 안에서의 갈등과 마주한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성주의 잣대가 아닌 그들이 살아온 삶으로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을 수립해가고 있다.

(2) 당사자 운동으로서 ‘여성’의 주체화 과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해석하고 성찰하면서 운동의 주체가 된다. 시택식구들에게 며느리역할에 대한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역할

의 변화를 가져오고, 개인의 문제해결에서 발전하여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힘(empowerment)을 발휘한다.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사용이나 경제적 주체로서의 재산권 요구를 통해 정치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했다.

남편은 “내가 당신보다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거기다가 나는 남자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태도 없는 소리죠. “남자라서 어쩐다고? 똑같이 돈 벌고 똑 같이 일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꼭 여성주의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주의를 알면 알수록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씩 따지기 시작했어요(사례 5).

자원 활동을 할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택에 가서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힘들고 부당함이 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말하게 된 것도 여성주의를 만나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어디를 가는 것에 자유로워졌고 집을 내 명의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내 명의로 한 뒤로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당당한 생각이 드는 거죠(사례 1).

명절에도 무조건 시택에 가면 친정을 못 갔는데 이제는 친정 가는 것에 대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집은 내 명의로고,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힘이 되기도 하고...(사례 2).

여성주의 정체성은 자신의 불평등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권리 획득을 함으로써 드러난다. 머느리라는 역할과 위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허락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재산획득은 가정 내에서 평등한 관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며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성에게 경제적 확보는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3) 여성주의 정체성의 현실적 갈등과 다양성

참여자들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라고 명명되었을 때 따라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말하는 참여자는 한 명 뿐이었고, 다른 참여자 한 명은 인터뷰 내내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듯 했고, 세 명은 여성주의자라기 보다는 활동가다,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① ‘여성주의자’에 대한 명명 거부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늘 여성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성주의자’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여성주의자’라고 규정해 버리는 순간 사회·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주도적 사람으로 이해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주의자라고 말하는 순간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을 바라보는 편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웬지 드세고 짬뽕 같고 맨날 사회적인 이슈파이팅만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편견 그리고 남성들이 그런 여성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여성주의자다,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사례 1).

저는 여성주의자라고 잘 안 밝혀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말을 했을 때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꼴통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기

분이 나뻐거든요. 예전에는 뭐가 어때서 당당하게 밝히고 내가 밝힘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지는 불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밝혀요(사례 5).

제가 강하게 생겼나봐요. 그러니까 역시라는 반응이 있었던 거 같고 풍기는 것은 강한테 말투나 이런 것이 좀 조곤조곤하니까 의외인데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여성주의자라고 숨기거나 그랬던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여성주의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일을 한다고 해요(사례 2).

자기가 여성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인지적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한 덩어리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성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죠(사례 3).

〈사례 3〉은 ‘영 페미니즘’ 세대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의 부문운동을 경험한 지역 여성 운동가들이 수도권에서 담론을 불러일으켰던 영 페미니스트 그룹과는 다를 수 있다. 지역에서는 아무리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직장에 다닌다 하여도 그 구성원의 여성주의 의식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커, 집단 정체성으로 무장되기 어렵다.

초창기에는 화장기 없고 쇼컷트, 되게 중성적인 이미지에 말을 거침없이 하고 날카롭고 급진적인 주제에 대해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저런 사람이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성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그냥 제 또래의 여성주의를 관심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을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해요. (...) 단체 활동을 통해 제가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웃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저항도 했다가 타협도 했다가...(사례 6).

〈사례 6〉은 6명의 참여자 중 유일하게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소개하였고, 여성주의자로 불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진보적인 것이며,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례 6〉은 김숙이(2007)의 연구에서 명명한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세대로 볼 수 있다. 한종태(2014)에 의하면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세대는 자기 정체성과 일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상의 정치학을 주된 운동의 방향성으로 설정하였고, 사적 영역의 정치화와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체화’를 주요 과제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표방하며 ‘여성’ 운동이 아닌 ‘여성주의’ 운동을 지향하고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자기규정을 해온 기존의 여성운동과 거리를 두었다(김숙이, 2007).

②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성

참여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주의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천 현장에서는 1세대, 2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재나 이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연령별로 실제 현장 안에서 이해하고 요구되어지는 여성주의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워크샵에 다녀왔는데 여성단체하면 여성주의 실천이 평등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고 평등한 조직체계가 완벽하게 되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활동가에게 차별적인 상황이 오면 불평등한 구조라고 느껴지고 이것에 대해 더 실망감을 느끼더라구요(사례 1).

참여자들은 여성주의는 이론과 실천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해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이해하며, 일정 부분 현실적 타협과 저항이라는 다양한 여성주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이 여성주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성주의 이론이나 실천의 대상이 광범위하며 실천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냥 내 사는 것 자체가 평등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여성학을 배워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소수자들의 입장이 더 우세해야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이 기득권의 이익에 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약자의 이익이 앞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개념은 여성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사례 3).

상담을 하면서 여성주의를 녹여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시급한 법적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사례 5).

(사례 5)의 업무인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일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장에서는 여성주의 담론을 내포하기 보다는 의료적, 법적지원을 중심으로 내담자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정미(2010)는 여성주의란 용어는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여성주의 글쓰기,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인문학 등 여성단체가 사업하는 곳곳마다 포스터를 장식했던 문구이며, 정작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자들 역시 주로 여성주의를 여성주의

실천으로, 각각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역여성들의 여성주의로의 진입은 이론적 무장과 실천적 동질화의 교과서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이 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맞닥뜨린 현장성 속에서 다져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한 실천

‘여성주의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 실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활동가들의 정체성에 일치시켜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정으로 확인되는 것이다(이디혜, 2012). 여성주의 정체성은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활동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1) 여성주의 리더십의 실천

옛날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부인들이 와서 여성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성들이 비혼이거나, 한부모이거나, 경제활동의 주체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생계가 가능해야지만 활동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사례 1).

〈사례 1〉은 지역 여성활동가의 현실적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금인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선배 여성활동가로서 여성운동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후배 활동가들을 중간리더로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에서 살아왔던 것이 한국에 오면서 많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치는 갈등을 제가 조금이라도 삶에 경험을 가지고 아울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주여성들에게 내 나름대로 여성주의를 교육하기 위해 사실은 엄청 노력했거든요(사례 2).

〈사례 2〉 역시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례 1〉과 비슷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이 다른 이주여성들에게서 여성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애과정에서 불평등 사건을 겪으면서 정체성 혼란을 느꼈지만 여성주의를 만나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던 것처럼, 언어와 문화의 경험은 다르지만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에게 여성주의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여성주의 네트워크 확장

〈사례 4〉는 인터뷰 내내 자신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성주의자라는 수식어를 부담스러워 했지만 지역에서 유일한 여성문화제를 기획하여 탄생시켰으며,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여성들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한다. 참여자가 겪어온 젠더 경험이 여성문화제 속으로 뛰어들게 하였고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센터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여성성이 뭔지 여성주의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 지역 여성들에게 대중적인 문화로서 영화라는 게 좋은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삶의 방식은 다 다양한데 그래서 가능성 내지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사례 4).

3) 소수자성의 재해석

1990년대 후반 한국 진보여성운동 진영에서 ‘차이의 정치학’이 새롭게

대두되며 번져나간 것이 여성 내부의 소수자운동론이다. <사례 6>은 포스트 ‘영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주변인, 타자, 소수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정체성을 구성한다(백소윤, 2010).

여성주의에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여성주의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동거라는 경험이 나에게 자산이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동거에서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혼을 통해서 주변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것부터 이런 나의 경험들이 나한테 자산이 되고 그 과정이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 자체가 실천인 것 같아요(사례 6).

<사례 6>은 법적혼인관계로만 인정받는 현실에서 동거라는 소수자성을 경험하며 ‘여성’이라는 타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교차하면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실천하고 있다. 즉 참여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은 젠더, 섹슈얼리티, 결혼, 나이 등의 사회요소들과 맞물려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자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소수자운동이 곧 ‘여성주의’ 운동인 동시에, 당사자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한종태, 2014)는 것을 <사례 6>의 여성주의 정체성 실천을 통해 알 수 있다.

4)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자라고 하면 여전히 강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서서히 바꿔가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임신과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친정 부모여야 한다는 거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사례 3).

〈사례 3〉의 여성주의 삶은 곧 정의로움과 연결된다. 자신의 여성주의 가치관을 펼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실천이라고 얘기한다.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이 더 있는 거 같아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되고 참여하려고 해요. (...)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여성주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등한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사례 5).

〈사례 5〉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공익활동과 연대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편협한 생각으로 고착될까봐 고민하는 것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성찰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세대를 넘어선 자녀세대에게까지 여성주의를 확산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남편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속옷도 찾아 입고 세면대도 씻어 놓는다던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평등적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각자의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사는 건데 이왕이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사회구조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죠(사례 2).

나는 뭘 실천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지? 그러면서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주의가 제 일상생활에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성주의적으로 바라봐야만 내 인생도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까? 라는 것을 여성주의가 제 공해주는 것 같아요(사례 6).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범주들의 복합적인 교차점들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여성의 정체성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다(이상화 외, 2007). 어떤 관점을 여성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의 해답은 다시 여성들이 고유의 경험과 사유에 주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백소윤, 2010). 참여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의 실천은 구체적인 ‘맥락’ 속의 ‘나’에 주목하는 것이며, 하나의 모양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실천은 개개인의 욕구와 어우러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지역 여성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의 젠더 경험이 여성주의와 만나면서 여성주의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개인이 여성주의 담론을 자신의 경험과 결합시켜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밝혀내기 보다는 여성주의 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을 그들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여성주의자’에 대한 내·외부적 편견과, ‘여성주의자라는 규범화된 상’에 대한 실제 없는 부담감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색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참여자들의 성역할, 모성, 성폭력 등의 젠더 경험은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하는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희생적 성역할을 요구받은 참여자들은 젠더 경험을 통해 차별을 인식하였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교육을 통한 주체의 자각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험과 여성주의 담론을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을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만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부단히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성주의라는 이상과 간극을 끊임없이 좁혀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점차 직업화, 사유화되어가는 여성운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며, 동시에 교육과 훈련, 네트워킹의 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 중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모두가 여성주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고민으로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로 명명되어지길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는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앞장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과거의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여성주의자로서보다는 인권활동가나 복지활동가라는 폭넓은 이미지가 덧붙여졌을 때

사회로부터 이해나 관심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여성활동가나 조직들이 여성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주의 실천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과거와 달리 여성주의 활동에 몰입하고 통합적인 추진력과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주의는 주변적인 담론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혐오 문화와 맞물린 고립된 상황은 여성주의자 되기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나 여성운동의 현 지평에 대한 여성 리더나 연구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여성운동을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론이나 담론에 따라가지 못하는 여성들과 이분화 되기도 하였다. 여성 활동가간의 차이, '여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대 담론으로 포장된 여성운동의 결을 다시 여러 갈래로 펼쳐 여성 활동가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해주는 다양한 소통관계를 통해 새로운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생애과정에 접목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 활동가들이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과 이를 둘러싼 조건들을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연령별로 여성주의와 접합하는 과정의 상이함 속에서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맥락이 개인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세대를 거처도 변화되지 않는 보편적 차별의 실체, 또 이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동력 역시 차별화됨을 인지하였다. 지역 여성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은 각각이 처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보편적인 문제와 특수한 갈등을 조합해내며 만들어가므로, 이들의 개인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의 실천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신과 주변의 변화에서부터 제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공적 활동까지, 여성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나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 행동의 모습으로 이해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금, 노동환경, 가사노동, 섹슈얼리티, 인권문제 등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여성주의 담론으로 연결하여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었으며,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의도적인 노력, 현실적 문제를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주의 정체성 실천은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 여성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실천현장에서는 이론의 무게만큼 적용이 안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수렴되어 실천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에서의 여성운동은 원론적인 기준과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여성주의 이론을 지역 실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안 탐색이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합일하는 여성주의 정체성에는 이를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여성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다른 종착역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의심, 성찰이라는 과정의 공급을 통해 다져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삶, 중첩되고 교차되는 여성의 위치성에 대해 다양성을 그려내고, 유통되는 이미지,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해 요소들이 범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주의자라고 불리우길 두려워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자신이 진정한 여성주의자이며 정체성 형성의 올바른 과정을 걸어왔음을 자각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여성주의적 삶은 더 친근해질 것이며 더욱 개발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의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란(2013), “여성단체 활동가의 풀뿌리 여성운동 조직경험 분석”, 성공회 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성례(201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 서울: 아르케, 21-48쪽.
- 김숙이(2007),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김아령(2008),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영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14),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주의’ 인식전환 경험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백소윤(2010), “한나 아렌트의 정치개념과 여성주의적 정체성 구성의 가능성”,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상민(2013), “대구역 인근 지역 성매매경험 여성 생애사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신경아(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인식”, 『젠더와 문화』, 제6권 2호, 215-252쪽.
- 신미란(2014), “지역여성운동 활동가의 ‘여성운동성’: 경남지역 활동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육정미(2010), “여성단체 활동가의 여성주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나영(2012),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181-218쪽.
- 이다혜(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이상화 · 김은실 · 허라금 외(2007),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엮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순영(2000), “30대 이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경 · 김보화(2015), “2·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한국여성학』, 제31권 4호 41-85쪽.
- _____ · 민가영 · 이박혜경 외(2007), 『여성학』, 서울: 미래 M&B.
- 이현재(2010), “모성의 아이러니와 행위자성”, 『여/성이론』, 제22호, 85-103쪽.
- 임옥희(2011), “신자유주의 시대와 젠더무의식”,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37-70쪽.
- 장미경(2006), 『한국 여성운동과 젠더 정치』,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전희경(200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현백(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분단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제4권, 1-42쪽.
- 조옥라 · 신경아(2000), “성 평등학에서의 남녀 관점의 차이와 융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여성학 수업 수강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00.11.18).
- 조혜자(2002), “비본질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자아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7권 3호, 115-130쪽.
- 최윤경(2010),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 젠더 편향과 여성 고유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3-231쪽.
- 한종태(2014),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활동가의 ‘위기’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황선영(2011), “여성운동단체 참여 경험이 여성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전화 지부 회원활동 참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Yin, R. K.(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박지연·이숙향·김남희
옮김, 서울: 학지사, Yin, R. K.(2010),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인터넷 자료〉

다음백과(2017), “젠더”, <http://100.daum.net>(검색일: 2016.9.2).

(논문 투고일: 2017.04.29, 심사 확정일: 2017.05.27, 게재 확정일: 2017.06.02)

〈Abstract〉

Process of the Formation of Feminist Identity in Female Activists Through Oral Life Histories

Cha, Kyeong-Hee* · Kim, Kyeong Shin**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in which local female activists recognize that their experience is gendered and changed into a feminist identity through an encounter with feminism.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y apply and expand their experience in the area of actual practice through forming a feminist ident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gender experienc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life, their awareness of discrimination was not complete, but rather it was reinterpreted and internalized as a feminist identity as they met feminism; Second, despite female activists putting feminism into practice through constant concern, they felt burdened to be called ‘feminists’. They thought that radical feminists must always take the initiative in struggles, so they refused to be called feminists since this indicated a level of feminism above that which they attributed to their own activity; Third, the practice of feminist identity by female activists has been linked to various women’s issues in Korean society, such as wages, working environment, household labor, sexuality and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y have become active subjects endeavoring to change problems in internal conflicts and intentional efforts.

Key words: life histories, feminist, feminism, feminist identity, gender experience

* Lead author, Master of NGO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